

7. 산상수훈 (3)

A. 비판하지 말라

- 전혀? => stop judging/condemning (μὴ κρίνετε): 계속된 흠집내기/비판하기를 멈추라!
- 참된 비판은 자신을 돌아봄=> 내 생각/말/행동에 책임.
- 자신을 예외로 생각지 말라. 한 가지 잣대로 나와 남(ἀδελφός, 형제=fellow Christian)을 판단.

B. Golden Rule (7:7-12)

- 구하라, 찾으라, 두드리라 => 나만?
- 결론. "그러므로...무엇이든지"(12 절)=> 남에게도 그렇게 하라.
- 이것이 율법이요, 선지자니라
 - "율법과 선지자"=> 유대성서를 지칭. 토라(율법, 가르침)/네비임(예언자)/케투빔(성문서). 성문서 내역이 정해지지 않았기에, 시편으로 대체하거나(눅 24:44), 단순히 '율법과 선지자'로 지칭(=>5:17). See also 마 22:35-40
 - 랍비 힐렐(Hillel)과 이방인 대화: "What is hateful to yourself, do not do to your neighbor. This is the whole Torah; and the rest is commentary." (b. Šabb. 31a)
 - 무엇이든지 => blank check(공수표)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, 초점은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것, 곧 그리스인의 삶.

C. 어떻게 살까--(7:13-27)

1. 두 종류 가치관/삶(7:13-14) => 큰 그림
 - 넓은 문=>지배이데올로기 (멸망에 이르는 길), 아무 생각없이 군중심리로 끌려 감
 - 좁은 문=>예수의 복음/천국이데올로기 (생명에 이르는 길), conscious effort
 - 길(ἡ ὁδός)=> "주의 길"(3:3); "하느님의 도"(22:16)=> 주의 도(道). '새길'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/도(道).
2. 참과 거짓 => 종교인/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서
 - 거짓선지자(15-20)=> 히브리성서(MT)에는 없는 용어 (LXX 33-35 장= MT 26-29 장).
 - 그 뜻은? 세상과 차별화를 말하지만(포장), 그 내용은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. 마태복음의 다른 말로, 위선자(hypocrite, ὑποκριτής)
 - "열매로 그들을 알찌니..." (7:16-20)=> 12:33 (일관성)
 - 거짓그리스도인(21-23)
 - 주여, 주의 이름=>고백 (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, 세상과 차별화를 말하지만....)
 - 거꾸로 읽기. "내가 너희를 몰랐다"=> "너희가 나를 몰랐다" (과거형.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뜻)=> 너무 심한 말??? (언행일치, 신앙의 일관성 강조). 안다(know/γινώσκω/ᾔδει) => 관계(relationship)
3.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=> 내부(교회) 이야기
 - 듣고 행하는 자=> 참 그리스도인(100%-순-진짜-참-기름)
 - 열매만으로는 부족. Q. 어떤 열매=> 어떤 하느님?
 - 하느님의 종류 (모세, 모하메드, 예수, 토속종교,)
 - 듣고=>identity; 행함=>life formation

생각해 보기

1. 진주와 거룩한 것은?
 - Eucharist (Didache 9:5)
 - 개/돼지/이방인(15:26-2; 18:1)=> 비인부전(非人不傳)
2.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/귀신축출/권능???? (힌트. "하느님의 뜻")